

중남미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미시자료 분석 –*

권기수 · 고희채**
공동/대의경제정책연구원

Kwon, Kisu · Ko, Heechae (201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ization and performance in Latin America: micro data analysi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ization and performance of Korean corporations in Latin America. The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localization has a positive coefficient but statistical insignificance. Among the factors affecting corporate sales, only two variables such as introduction of new products and setting price have positive effects on corporate performances. And among variables affecting corporate net profits, only a variable of introduction of new products has a positive impact on corporate performances. JEL Classification: F0, F2, M1.

Key words Latin America, Localization, Corporate Performances
중남미, 현지화, 기업성과

* 본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5).

** 연구책임자: 권기수, 공동연구원: 고희채

I. 서론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 대 중반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시기 해외직접투자 확대는 국제수지흑자에 힘입은 경제력 확대, 원화절상 및 인건비 상승 등 대내적 요인과 미국 및 EC 등 선진국의 수입규제,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적 요인의 결합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임금과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가격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국제경제의 지역주의화와 글로벌화가 추진됨에 따라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여 가격경쟁력을 유지·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해외투자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1990년대 후반까지 대기업이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금액의 약 80%를 차지하며 해외직접투자를 주도해왔으나, 2000년대 들어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저변이 넓어지고 투자규모도 확대되면서 투자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성공과 실패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성공적인 기업의 투자진출 전략 중 현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지화는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독립된 경영주체로서 현지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말한다. 인적자본, 원재료 및 부품, 기술, 자본 등의 경영자원을 현지에서 조달하고 현지시장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과 현지사정을 감안한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현지화의 주요 과제이다. 또한 기업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고용, 수출, 기술이전, 인재육성측면에서 현지정부나 현지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현지화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즉, 현지화는 본국의 경영방침과 시스템을 원형으로 삼되 마케팅, 생산, 조직, 회계 등 기업 활동 전 분야에서 현지사회에 적합한 독자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지사회에 융화함으로써 현지에서 성공적인 사업 활동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용규 2000).

현지화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생산기지에서 내수시장진출 확대, 세계시장 통합화로 인한 기업간 경쟁심화와 투자진출국의 요구에 의해

필요하게 된다. 우선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생산 및 판매법인을 설립할 때 낮은 기후, 문화, 투자진출국의 정부규제 등으로 인해 본국에서 적용하던 생산, 판매, 홍보 등 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저임금 등 비용절감을 위한 생산기지 확보차원에서 투자진출 목적이 내수시장진출 확대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각국의 시장개방이 진행되면서 글로벌기업과 토착기업들이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진출국의 성공적인 사업정착을 위해 연구개발, 판매, 광고 등에서 현지기업과의 협력이 중요시되고, 지역 네트워크 강화 등 끊임없는 파트너 발굴을 위해 생산과 교역비용을 줄여 자신의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진출기업의 현지화는 투자진출국 정부가 현지인 인력채용 증가를 목적으로 암묵적인 요구를 하기도 하며, 소비자 및 현지직원들에 의해 제기되기도 한다.

그간 국내에서도 현지화가 기업성가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핵심요소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어 왔다. 우리기업의 중남미 투자진출 역사가 30년을 넘고, 최근 자원개발, 건설·플랜트, 제조업 생산기지 등의 투자진출 대상으로 중남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남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지화와 기업성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남미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가 경영성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은 II장에서는 현지화와 우리나라 대중남미투자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현지화에 대한 기존문헌과 우리나라의 대중남미투자 추이를 개괄한다. III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 변수 및 분석방법을 소개하고, IV장에서는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여 현지화가 중남미 진출 우리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 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II. 기존 문헌 및 대중남미투자 추이

1. 기존연구

기업의 현지화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들이 어떻게 현지화의 개념정의를 하느냐에 따라 다양하다. 현지화를 기업의 경영분야인 인적자원, 경영관리, 마케팅, 생산 및 기술, 자원조달 분야 등으로 나누어 현지화의 정도를 측정하거나, 자회사와 모회사간의 관계 또는 기업의 내부·외부적 측면에서 현지적응 정도를 파악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지화의 개념에 대해 Perlmutter(1969)는 기업 활동의 주요부분을 현지에서 수행함으로써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현지국 기업으로 정착해가는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Jarillo & Martinez(1990)은 현지에서 부가가치 활동수행정도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자회사 현지화의 요소로 파악하였다. Slim(1977)은 기업들의 현지화정도를 진출기업의 분권화정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말레이시아에 투자한 다국적기업들의 현지화는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결과를 준다고 제시하였다. Mariotti & Piscitello(1995)는 이탈리아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경우 현지국의 특성 중 진출국가에 대한 정보비용(information cost)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Christmann & Yip(1999)은 37개 국가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를 대상으로 진출국가의 경제발전수준, 산업구조, 기업특성과 자회사의 전략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현지시장특성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산업구조, 자회사 전략과 기업의 특성의 순으로 경영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연구로 박길상(1999)은 미주 및 동남아지역에 투자한 한국섬유산업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투자성과 및 문제점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섬유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주요 동기는 선진국의 무역장벽 강화, 국내임금의 인상, 현지의 낮은 생산비 이용, 뛰어난 제조기술 등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김용규(2001)는 북미시장에 진출한 307개 업체(유효 설문지는 61개 기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해외직접투자의 사업성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해외자회사의 현지화의 필수요소인 사업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시장지향성을 중심으로 기업특유요소, 경쟁전략, 시장특유 요소가 해외자회사의 성과에 미치는 독립효과와 현지시장 환경이 시장지향성과 해외자회사와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정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시장지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해외자회사의 사업성과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특유요소인 기업의 규모, 국제화 경험 및 차별화 우위 경쟁전략은 해외자회사의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나 시장지향성에 비하여 사업성과에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일주 · 이두원(2009)은 동남아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 성과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동남아 지역 중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3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의 투자성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의 규모가 크고 합작투자의 형태이며 수출보다는 내수 위주의 기업일 경우 더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연구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다. 먼저 한충민(2000)은 한국기업의 중국 직접투자의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91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성과 요인을 크게 기술, 국제화 경험, 소유지분 유형 등 3가지로 분류해 조사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기술의 노동 집약도, 현지적합 정도 및 투자기업의 국제화 경험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유지분 유형은 현지매출 비중 및 현지조달 비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또한 장혜지외(2005)는 중국진출 한국기업 147개 기업(유효설문지 86개)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지국 시장특성, 경쟁특성요인, 기업특유요인, 그리고 현지화 특성요인이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및 이들

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소유지분 배분방식을 단독투자
와 합작투자의 형태로, 투자동기의 유형을 중국 내수시장지향형과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이외의 수출시장지향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시
장특성요인 중에서는 시장잠재력, 국가간 동일성, 경쟁특성요인 중에서는 지
역 내에서의 경쟁자 수가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으며, 지리적 근접성은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특유요인 중에서는 생산능력 및 연
구개발 능력, 그리고 마케팅 능력이 중요한 영향변수로 나타났다. 반면 현지
화특성요인 중에서는 현지유통망 구축, 현지인력 활용, 그리고 업무의 현지
화 등이 투자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지사회와
의 융화와 원부자재 조달정도는 제한적 차원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권영철(2009)은 중국(유효설문지 152개 기업)과 인도(유효설문지 16개 기
업)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지자회사의 역할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시장지향성-현지화-경영성과” 모델에 의거하여
분석한 결과, 시장지향성 및 현지화는 현지자회사의 경영성과에 매우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또한 시장지향성은 현지화의 주요 선
행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지향성-현지화-경영성과”메커니즘에 있어
현지국 시장의 경쟁강도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해외직접
투자 연구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
리나라의 대중남미 직접투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 같이
중남미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이유는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대부분이 중국, 미국 및 아시아 국가 등 일부 국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상
대적으로 중남미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측면이 크다고 하겠다.

2. 대중남미투자 추이 및 특징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투자금액과 건수 모두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1986년 해외투자촉진을 위한 정부의 해외 투자제도 개선을 계기로 해외직접투자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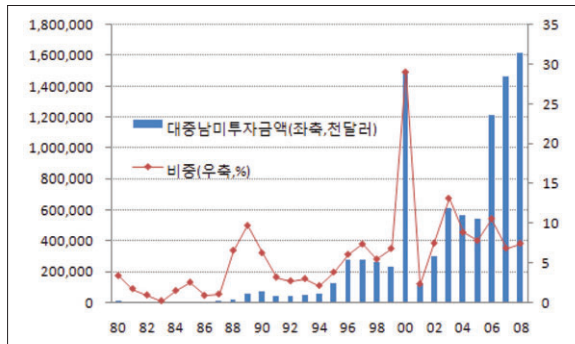
이와 같은 전체적인 해외투자 증가 추세에 편승하여,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도 1980년대 중반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87년 이전까지 연평균 백만 달러대에 불과하던 투자규모가 이 시기에는 4,400만 달러대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 같은 투자 급증세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중남미지역의 비중은 1989년 약 10%에 육박하기도 하였다.

대중남미직접투자 증가추세는 1990년대 초반 잠시 주춤했으나 1994년 이후 NAFTA 출범, MERCOSUR 공고화, 중남미 경제의 안정 등의 요인에 힘입어 다시 급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남미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1996년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은 우리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에 관심을 고조시키는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연평균 투자규모도 이전시기 천만 달러대 수준에서 2억 2,780만 달러 수준으로 급등하였다. 대부분의 투자가 브라질, 멕시코에 집중되었으며 페루를 비롯한 안데스지역에 대한 투자도 크게 증가하였다.

1990년대 중반이후 급증세를 보이던 대중남미 투자는 1997년을 최고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1999년 이후 급락하였다. 이 시기 투자 감소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기업의 투자여력 상실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의 경제위기 와 맞물려 증폭되었다.¹⁾ 그 결과, 이 시기 연평균 투자규모는 이전시기보다 크게 감소한 1억 5,762만 달러에 머물렀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투자 감소세 속에서도 페루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2002년부터 대중남미 투자하락세를 반전시켰다. 특히 대

1) 특히 주목되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여파로 1996년 대통령 중남미 순방을 전후, 계획되었던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가 대부분 취소되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브라질의 경우 당시 우리기업의 투자계획은 총 40억 달러를 상회했는데 이 중 LG전자의 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가 취소되거나 보류되었다.



〈그림 11-1〉 우리나라의 對중남미직접투자 추이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페루 투자는 광업부문 중에서도 유전개발 분야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이 시기 페루에 대한 투자비중은 28.6%를 기록, 멕시코(14.1%), 브라질(8.7%)을 크게 앞질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섬유봉제 투자지역인 중미지역에 대한 투자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 시기 중미지역에 대한 연평균 투자규모는 1,763만 달러를 기록, 이전시기의 772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최근 들어 중남미지역은 세계적인 원자재난에 힘입어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그간 주춤했던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도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대중남미 투자는 제조업 투자대상지이나 자원투자처인 페루와 브라질, 멕시코 등에 집중되고 있다.

우리기업의 對중남미 투자전략은 지역별·국가별로 뚜렷한 유형을 보여준다. 먼저 제3국, 특히 미국시장 우회진출을 위한 효율성 추구형 전략은 멕시코와 중미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요 투자 분야는 전자제품 및 부품, 섬유의류제품, 완구 등이다.

둘째, 중남미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 개발을 겨냥한 자원개발형 투자전략은 유전, 광물, 임산물, 수산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셋째, 현지 내수시장을 겨냥한 시장추구형 전략은 제조업의 경우 멕시코와 브라질에서 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대표적으로 도소매

〈표 II-1〉 한국기업의 對중남미 투자진출 전략유형

투자 전략		주요 분야 및 국가
자원 개발형	상 품	석유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브라질 광물 브라질, 페루, 파나마, 칠레, 베네수엘라 삼림 칠레 수산 파나마, 페루,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서비스	
시장 확보형	상 품	전기전자 브라질, 멕시코
	서비스	도소매 아르헨티나, 파나마, 멕시코, 브라질 통신 멕시코, 카리브
효율성 추구형	상 품	전기전자 멕시코 섬유의류 멕시코, 중미·카리브지역
	서비스	

자료: 필자 작성, ECLAC.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남미지역에 대한 투자는 현지시장 확보형 성격이 강하다. 멕시코 및 중미지역에 대한 투자와는 달리, 남미지역, 특히 브라질에 대한 투자는 현지시장 확보를 위한 시장추구형 목적이 크다. 이는 현지 투자 기업의 매출구조면에서 볼 때 제3국 수출이 극히 저조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진출 한국기업 총 47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09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이메일·팩스·전화·현지방문조사 등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총 136개 기업의 설문이 최종적으로

유효 설문지로 선정되었다²⁾.

2. 변수의 설정 및 측정방법

본 연구는 중남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우선 종속변수인 경영성과는 매출액과 순이익에 대해 경영자가 판단하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측정 하였다³⁾. 예를 들어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순이익의 흑자가 지속되면 5점, 매출액이 평년수준이거나 순이익이 흑자로 반전되면 3점,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순이익이 적자 기조이면 1점을 부여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 사용된 설명변수들은 기존 연구에서 흔히 인용된 변수들 중에서 자료 이용이 가능한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우선 투자기업의 규모와 경영성과와는 정(+)⁴⁾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생산 등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활동을 통한 기술의 습득 및 경험 축적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종사자를 포함한 전체 종업원 수를 기업의 규모로 측정하였다.

또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진출기업의 현지 경쟁력 유지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진출기업의 경쟁력 유지 요인을 가격경쟁력, 생산품의 품질, 브랜드 이미지, 앞선 기술 등 9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5점 척도를 조사하였다.

현지 환경에 대한 기업의 적응력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지화에 대한 연구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현지화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즉, 현지화란 해외직접투자를 통하여 국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자신의 경쟁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진출 국가 혹은 지역의 상이한 문화

-
- 2) 본 자료는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09년 공동으로 실시한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이다.
 - 3)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영업이익률 등의 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업 내부자료를 현실적으로 얻기는 어려웠다. 이와 같은 재무제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에 많은 연구들에서 시장이나 기업의 만족도를 경영성과의 대리 지표로 사용해 측정하고 있다(Killing, 1983; Schaan, 1983; Geringer and Hebert, 1991; Beamish, 1993).

〈표 III-1〉 변수설명

구 분	변수 및 정의	척 도
경영성과	매출액 및 순이익: 현지법인의 최근 3년간(06-08)성과지표	5점척도(증가/흑자지속: 5점, 평년 수준/흑자반전: 3점, 감소/적자 기조: 1점)
기업규모	총종업원수	현지종업원수와 한국인포함 종업원수
	투자금액	현지투자금액(천 달러)
현지진출연수	현지진출연수	2009년을 기준으로 현지진출연수를 뺀 값으로 정의
진출기업 경쟁력 유지 요인	가격경쟁력	5점 척도(매우 중요 :5점, 보통 3 점, 중요치 않음 1점)
	생산품의 품질	
	브랜드 이미지	
	앞선 기술	
	현지시장에서의 마케팅 우위	
	수출시장에서의 마케팅 우위	
	앞선 경영기술	
	앞선 유연성과 적응력	
현지화 정도	현지정부와의 교섭력	5점 척도(현지주도 : 5점, 대등 : 3점, 본사주도 : 1점)
	신제품 도입에 관한 결정	
	판매제품의 가격 결정	
	매출목표결정	
	해외 혹은 현지의 새로운 시장진출	
	생산량 결정	
	주요 원료, 부품의 구매결정	
	신규설비 구매와 생산설비 확대 결정	
	조직구조의 변경 결정	
	종업원의 채용, 승진 급여 결정	
자금조달 결정		
현지시장 특성	시장성	5점 척도(정말 그렇다 : 5점, 보통 : 3점, 전혀 아니다 : 1점)
	정치적 안정	
	성장잠재력	
	현지 유통망	
	인프라	
	인접국가 진출이 용이	
	현지정부 효율성	
	현지금융 접근성	
	금융비용	
	과세수준	
	자본유출입	
	계약과 지불	
	가격규제	
	직접투자로서 적합성	
자원개발대상국가로서 적합성		
현지시장에 대한 예측 가능		

나 경영환경 특성에 맞추어 현지 사업 단위를 적응시켜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업의 경영현지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경영관리 기능별, 의사결정권한의 위양정도, 인적자원관리 등을 나누어 볼 수 있다(이일주 외 2009).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권한의 위양정도를 현지화 정도로 조사 하였다. 의사결정권한의 위양은 신제품 도입에 관한 결정, 판매제품의 가격결정, 매출 목표, 매출목표 결정, 해외 혹은 현지 새로운 시장진출, 생산량 결정, 주요 원료·부품의 구매결정, 신규 설비 구매와 생산설비 확대결정, 조직구조의 변경결정, 종업원의 채용·승진·급여결정, 자금조달 등 총 10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직접투자 입지선택에서 중요한 결정요인 중의 하나로 장소특유요인(국가특유요인이나 환경특유요인)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국가특유요인 즉, 현지시장의 특성을 설명변수에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 현지시장의 특성은 내수시장의 크기, 정치적 안정성, 현지 유통망 및 인프라의 구비정도 등 총 1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측정방법 및 척도에 대한 요약은 <표 III-1>과 같다.

3. 분석방법

실증분석을 위해 주요 변수들을 추정하고, 각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추정하였다. 평균값을 추정한 결과, 종속변수인 매출액과 순이익은 5점 만점에 각각 3.4점, 3.3점으로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명변수 중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종업원 수는 419.4명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진출 평균 연수는 9.1년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업의 현지화정도와 경쟁력(진출기업 경쟁력 유지 요인)은 각각 3.5점, 3.8점으로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지시장특성은 2.8점으로 평균보다 소폭 아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화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연구는 기업의 경영성과 측정지표로

〈표 III-2〉 변수의 기초통계량 I

	매출액	순이익	종업원 수	진출연수	현지화	경쟁력	현지특성
평균	3.4	3.3	419.4	9.1	3.5	3.8	2.8
중위수	3.0	3.0	66.5	8.0	3.6	3.8	2.8
최대값	5.0	5.0	6,576.0	36.0	5.0	5.0	5.0
최소값	1.0	1.0	2.0	0.0	1.0	1.8	1.1
표준오차	1.6	1.7	862.2	7.1	1.0	0.8	0.6
표본수	116	97	132	134	80	112	118

투자수익률, 매출액, 공헌도, 시장점유율, 순이익 등 기업의 재무성과를 사용한다. 또한 기업의 경영성과는 직무만족도, 조직몰입, 근로자가 인식하는 업무성과 변화, 직장매력도, 계속근무의사 등으로 측정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현지화정도를 총 10개 부분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는데, 척도기준으로 생산량결정이 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종업원의 채용과 승진급여결정이 각각 4.0점, 매출목표결정이 3.8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금조달이 가장 낮은 점수(2.8점)를 기록했다.

〈표 III-3〉 변수의 기초통계량(현지화정도)

	현지화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평균	3.2	3.5	3.8	3.3	4.3	3.6	3.2	3.6	4.0	2.8
중위수	3.0	4.0	4.0	3.0	5.0	4.0	3.0	4.0	5.0	3.0
최대값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최소값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표준오차	1.6	1.7	1.4	1.6	1.2	1.6	1.5	1.4	1.3	1.6
표본수	64	72	74	75	64	66	63	76	77	72

주 : ①신제품 도입에 관한 결정 ②판매제품의 가격 결정 ③매출목표결정 ④해외 혹은 현지의 새로운 시장진출 ⑤생산량 결정 ⑥주요 원료, 부품의 구매결정 ⑦신규설비 구매와 생산설비 확대 결정 ⑧조직구조의 변경 결정 ⑨종업원의 채용, 승진급여결정 ⑩자금조달 결정

IV. 실증분석

1. 추정모형

자기상관이 시계열자료의 분석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이분산의 문제는 횡단면자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분산이 나타나는 경우 최소자승추정량의 불편성과 일치성은 유지되나, 회계계수 추정량의 분산이 커져 효율성이 낮아지게 되어 선형불편추정량(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 : BLUE)이 되지 못한다.

산업별로 한국의 대중남미 투자용 광업, 섬유, 의류, 전자 등 여러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 또는 기업간의 이질성을 통제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Revision 3.1 : ISIC Rev. 3.1)를 참조하여 실증분석에 산업별더미⁴⁾를 추가하여 위와 같은 문제를 고려하였다.

위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한 본 연구의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P_{ij} = \alpha + \beta_1 Size_{ij} + \beta_2 Y_{ij} + \beta_3 Com_{ij} + \beta_4 Char_{ij} + \beta_5 Local_{ij} + \beta_6 D_{ij} + \varepsilon_{ij} \dots\dots\dots(1)$$

단, P_{ij} 는 i 국에 진출한 j 기업의 기업성과, $Size_{ij}$ 는 i 국에 진출한 j 기업의 규모, Y_{ij} 는 i 국에 진출한 j 기업의 현지진출연수, Com_{ij} 는 i 국에 진출한 j 기업의 경쟁력, $Char_{ij}$ 는 i 국의 현지시장 특성, $Local_{ij}$ 는 i 국에 진출한 j 기업의 현지화정도, D_{ij} 는 i 국에 진출한 j 기업의 산업군 더미변수, ε_{ij} 는 오차항

2. 추정결과

앞서 제시한 “현지화정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경영성과는 높아진다.”라는 <가설> 을 검증한 결과는 아래 <표 IV-1>에 나타나 있다(<부록 1>참조). 전술

4) 산업별더미는 한국기업이 대중남미에 투자한 산업으로 섬유의류산업, 출판인쇄업, 철강화학산업, 전기전자산업, 기계장비산업, 기타(도소매 및 개인잡화 등)으로 6개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한 바와 같이 경영성과를 기업의 매출액과 순이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매출액을 경영성과로 파악한 실증분석 결과, 기업규모는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매출액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가격경쟁력, 생산품의 품질, 브랜드 이미지 등과 같은 진출기업의 경쟁력도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현지진출 연수는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지에 진출하여 쌓은 경험이 경영성과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한편 시장성, 정치적 안정성, 현지 유통망, 인프라 등을 포함한 현지시장의 특성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일반적인 현지화(평균) 계수는 양(+)이나 유의한 수준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는 현지화정도가 기업성과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지화정도를 세분한 변수 중 “신제품도입”이나 “판매제품가격”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신제품도입과 판매제품가격 결정에 대한 현지화정도를 높일수록 기업의 경영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어느 정도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중남미 현지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현지시장의 수요에 대응해서 신속적으로 신제품이나 판매제품의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는 것이 기업의 매출액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한편 경영성과를 순이익을 기준으로 사용한 실증분석결과는 전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우선 기업규모는 매출액과는 달리 순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계수 값이 마이너스(-)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했다. 현지진출연수, 즉 해당국가에 진출연수가 긴 경우도 기업의 순이익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현지시장의 특성은 매출액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현지화정도는 앞선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우선 현지화(평균지수) 계수는 마이너스(-)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매출액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와 동일하게 “신제품도입”은 현지화정도가 높을수록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입증되었다(<부록 1>참조).

V. 결론

본 연구는 중남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현지화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총 13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기업규모가 크고, 현지시장특성(시장이 크거나, 정치적 안정성 및 시장잠재력이 높을 수록)이 양호할수록 더 높은 기업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지화는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종속변수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현지화정도 세부변수 중 “신제품도입”과 “판매제품가격”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신제품도입” 결정이 기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횡단면 자료는 특정시점에서 여러 개체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변수들 간 정적관계만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기업특유 요인 및 시장 환경요소 등은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분석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중남미진출 한국기업의 표본수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설문조사에서 종종 제기되는 애로 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남미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표본확대를 통한 투자성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지역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다 보니 우

리기업의 對중남미 소지역별·국가별 투자전략을 고려한 분석이 시도되지 못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기업의 중남미 투자 진출 전략은 미국시장 우회진출을 위한 효율성 추구형, 중남미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 개발을 겨냥한 자원개발형, 현지 내수시장을 겨냥한 시장추구형으로 대별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소지역별, 국가별로 상이한 우리기업의 투자전략을 고려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권영철(2009), 「친디아 시장 진출 국내기업 현지화회사의 시장지향성과 현지화 및 성과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연구, Vol. 20, No. 1, pp. 55-80.
- 김용규(2000), 「국제기업의 아시아 주요 신흥시장 진출시 현지화 고려 요소」, 국제경영연구, Vol. 11, No. 2, pp. 141-185.
- 김용규(2001), 「북미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지화 전략」, 국제경영연구, Vol. 12, pp. 271-300.
- 박길상(1999), 「한국섬유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산학경영연구, Vol. 12, pp. 209-237.
- 신만수/김주희(2008),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와 조직성과와의 관계: 이머징국가 비교연구」, 국제지역연구, Vol. 12, No. 1, pp. 225-247.
- 이일주/이두원(2009), 「동남아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성과분석」, 동남아시아연구, Vol. 19, No. 1, pp. 1-27.
- 장혜지 외 2인(2005), 「해외직접투자의 성과요인에 관한 연구: 중국진출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국제경영연구, Vol. 16, No. 3, pp. 27-64.
- 한충민(2000),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직접투자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제경영연구, Vol. 1, No. 2, pp. 375-396.
- Alicia Garcia-Herrero, Daniel Santabarbara(2005), "Does China have an impac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Latin America?," *International Finance* 0508010, EconWPA.
- Blonigen, B.A.(2005),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on FDI

- Determinants,” NBER Working Paper 11299.
- Braunerhjelm, P., L. Oxelheim, P. Thulin(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and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Role of Industry-Specific Effect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4, pp. 677-694.
- Borensztein, E. *et al.*(1998), “How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Affect Economic Growth?,”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45, pp. 115-135.
- Carkovic, Maria, Loss Levine,(2002),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Accelerate Economic Growth?,” University of Minnesota, mimeo.
- Castellani, D., I. Mariotti, L. Piscitello(2008), “The Impact of Outward Investments on Parent Company’s Employment and Skill Composition Evidence From the Italian Case,”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19, pp. 81-94.
- Caves, R.(1982),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Economic Analysi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
- Christmann, P., Day, D., Yip. G.S(1999). “The Relative Influence of Country Conditions, Industry Structure and Business Strategy on Multinational Corporation Subsidiary Perform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Vol. 5, pp. 241-265.
- Chen, Chien-Hsun(1996). “Regional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Mainland China,” *Journal of Economic Studies*, Vol. 23, No. 2, pp. 18-30.
- Desai, M., F. Foley and J. Hines(2009), “Domestic Effects of the Foreign Activities of U.S. Multinationals,”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1(1).
- Doz, Y., C.K. Prahalad(1986), “Controlled Variety:A Challenge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the MNC,” *Human Resource Management*, Vol. 25, No. 1, pp. 55-71.
- Dunning, J. H.(1980), “Toward and Eclect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Some Empirical Tes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Spring/Summer, pp. 9-31.
- Dunning, J. H.(1988), “The Eclectic Paradigm of International Production: A

- Restatement and Some Possible Extens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19, pp. 1-31.
-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09),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Data Services, February.
- Esty, Daniel C., M. A. Levy, C. H. Kim, A. de Shervinin, T. Srebotnjak, and V. Mara(2008), 2008 Environment Performance Index, New Haven: 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 Feldstein, M. S.(1995), “The Effects of Out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the Domestic Capital Stock. In M. S. Feldstein,” in J. R. Hines, & R. G. Hubbard (eds.), *The Effects of Taxation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eringer, J. M. and Herbert, L.(1991), “Measuring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22(2), pp. 249-264.
- Giovanni, J.D.(2005), “What Drives Capital Flows? The Case of Cross-border M&A Activity and Financial Deeping,”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65, pp. 127-149.
- Hansen, Henrik and John Rand(2006), “On the Causal Links between FDI and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Vol. 29, pp. 21-41.
- Hanson, G., R. Mataloni, M. Slaughter(2003), “Expansion Abroad and the Domestic Operations of U.S. Multinational Firms,” Mimeo.
- Head, K., J. Ries(2004), “Exporting and FDI as Alternative Strategies,”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Vol. 20, No. 3, pp. 409-423.
- Hsiu-Ling Wu, Chien-Hsun Chen(2001), “An Assessment of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China’s Transitional Economy,” *Europe-Asia Studies*, Vol. 53, No. 8 (Dec., 2001), pp. 1235-1254
- Johnson, Andreas(2006), “The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Host Country Economic Growth,” CESIS Electronic Working Paper Series, No. 58.
- Jarillo, J.C., Martinez, J.I.(1990), “Different Roles for Subsidiaries: The Cas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Spai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11, pp. 501-512.

Killing, J. P.(1983), *Strategies for Joint Ventures Success*, New York: Praeger

Lim, S., H. Moon(2001), "Effects of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Home Country Exports: The Case of Korean Firms," *Multinational Business Review*, Vol. 9, No. 1, pp. 42-49.

Mariotti, S., Piscitello(1995), "Information Costs and Location of FDIs within the Host Country: Empirical Evidence from Italy,"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26, No. 4 (4th Qtr., 1995), pp. 815-841.

Moosa, I.(2002),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ory, Evidence and Practice*, Palgrave.

Perlmutter, H.(1969), "The Tortuous evolution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Vol. 4, No. 1, pp. 9-18.

Schneider, F., Frey, B.(1985), "Economic and Political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World Development*, Vol. 13, No. 2, pp. 161-175.

Slim, A.B.(1997). "Decentralized Management of Subsidiaries and their Performance,"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Vol. 17, No. 2, pp. 45-57.

Stevens, G. V. G., Lipsey, R. E.(1992), "Interaction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Invest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11(1), pp. 40-62.

The Heritage Foundation, Dow Johns & Company Inc.(2009), *Index of Economic Freedom*, Washington, D.C.

Torsten Wezel.(2003), "Determinants of Germa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atin American and Asian Emerging Markets in the 1990s," *Economic*

권기수

서울시 서초구 영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skwon@kiep.go.kr

고희채

서울시 서초구 영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cko@kiep.go.kr

논문접수일: 2010년 9월 1일
심사완료일: 2010년 10월 15일
게재확정일: 2010년 10월 26일

〈표 IV-1〉 계속

변 수	매 출 액										
	식 (1)	식 (2)	식 (3)	식 (4)	식 (5)	식 (6)	식 (7)	식 (8)	식 (9)	식 (10)	식 (11)
주요 원료/부품 구매결정							-0.1879 (-1.353)				
신규설비 구매/생산설비 확대 결정								0.1933 (1.107)			
현지											
조정								0.0978 (0.652)			
도										0.1232 (0.663)	
자급조달 결정											0.0893 (0.576)
Adjusted R ²	0.1419	0.2454	0.2018	0.14491	0.1602	0.2281	0.1577	0.1483	0.1334	0.1429	0.1336
표본수	65	54	61	62	62	54	54	54	61	62	60

주 : * **, ***는 각각 10%, 5%, 1%수준에서 유의한 수준이며, ()안은 통계치임.

〈표 IV-2〉 현지화가 경영성과(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변 수	매 출 액										
	식 (1)	식 (2)	식 (3)	식 (4)	식 (5)	식 (6)	식 (7)	식 (8)	식 (9)	식 (10)	식 (11)
상수항	-0.3867 (-0.256)	-1.3842 (-1.044)	-0.8988 (-0.667)	-0.6179 (-0.474)	-0.9183 (-0.713)	1.0879 (0.623)	0.1213 (0.077)	-0.1086 (-0.067)	-0.4441 (-0.308)	-1.7752 (-1.184)	-0.5164 (-0.379)
기업규모	0.0000 (0.050)	-0.0000 (-0.134)	0.0000 (0.020)	0.0000 (0.041)	0.0000 (0.012)	0.0001 (0.478)	0.0000 (0.119)	0.0001 (0.441)	0.0000 (0.019)	0.0000 (0.075)	-0.0000 (-0.059)
현지진출 연수	-0.0079 (-0.214)	0.0497 (0.995)	-0.0064 (-0.173)	-0.0083 (-0.229)	-0.0132 (-0.361)	-0.3879 (-0.954)	-0.0142 (-0.380)	-0.0340 (-0.729)	-0.0045 (-0.120)	-0.0209 (-0.576)	-0.0000 (-0.0009)
진출기업 경쟁력	0.2574 (0.836)	0.3559 (1.309)	0.3917 (1.281)	0.4378 (1.418)	0.3729 (1.223)	0.2788 (0.862)	0.4308 (1.2963)	0.2286 (0.642)	0.3078 (0.973)	0.3795 (1.268)	0.3454 (1.080)
현지시장 특성	0.8063** (2.044)	0.3559 (0.742)	0.8306** (2.154)	0.8319** (2.189)	0.8807** (2.314)	0.7044 (1.476)	0.7262 (1.458)	0.6476 (1.296)	0.7886* (1.958)	0.9306** (2.437)	0.7405* (1.836)
평 균	-0.0593 (-0.179)										
신제품 도입		0.2914* (1.871)									
판매제품 가격		(-0.436)	-0.0588								
매출목표 결정				-0.1629 (-0.996)							
해외 현지 새로운 시장진출					-0.0511 (-0.338)						
생산량 결정						-0.2844 (-1.475)					

현지화 정도

〈표 IV-2〉 계속

변수	매출액											
	식(1)	식(2)	식(3)	식(4)	식(5)	식(6)	식(7)	식(8)	식(9)	식(10)	식(11)	
주요원인/부품 구매결정							-0.2775* (-1.732)					
신규설비 구매/생산설비 확대 결정								0.0711 (0.385)				
현지												
조정									-0.0689 (-0.422)			
도										0.1578 (0.897)		
											-0.0723 (-0.433)	
Adjusted R ²	0.1305	0.2693	0.1879	0.2079	0.1925	0.1815	0.1480	0.0557	0.1412	0.2047	0.1475	
표본수	59	48	55	56	56	51	50	51	56	56	55	

주 : * , ** , ***는 각각 10%, 5%, 1%수준에서 유의한 수준이며, ()안은 통계치임.